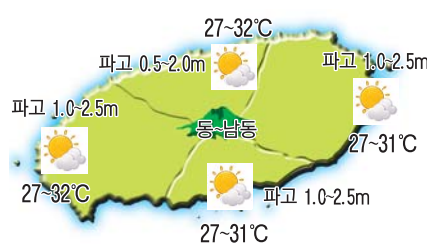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4일 월요일 음 7월 12일 (4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6/32°C
모레	맑음	26/32°C

구름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다. 아침 최저기온은 27°C, 낮 최고기온은 31~32°C로 예상된다. 오후 중산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올 수 있다.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겠으며, 먼바다의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02 해질 19:10	달돋이 16:56 달집 01:50
물때 만조 08:14 21:40	간조 03:39 14:40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월드뉴스

캐나다 총리, 무역갈등 미국에 “이전 전쟁”

캐나다산 관세폭탄에 보복관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이 무산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공격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부과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배제하고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연합뉴스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캐나다의 주력 산업인 철강·자동차·목재에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로 50%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캐나다인들의 감정까지 건드린 바 있다. 연합뉴스

백록담



문 미숙

경제부동산부국장

제주도민에게 비행기는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배편도 있지만 병원 진료나 시험, 가족 방문을 위해 다른 지방을 오가야 할 때 여유롭게 배를 이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 좌석은 지난 7월까지 3년 달 연속 감소했다. 6월에는 1년 전보다 9.1%(22만5400석), 7월에는 4.5%(11만4700석)가 줄었다. 하루 평균 각각 7500석과 3700석의 좌석이 사라진 셈이다.

공급 좌석이 줄면서 운임 할인

제주도민 이동권, 언제까지 시장에만 맡겨둘 건가

폭도 축소돼 이용객 부담은 더욱 커졌다. 최근의 높은 항공 운임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시장을 양분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2006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잇따라 취항하기 전에는 주중·주말·성수기 정도로 운임이 구분됐다. 이후 여러 항공사가 경쟁하면서 다양한 할인 요금이 등장했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

최근의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에 대형 항공기를 우선 투입하고 있어서인데,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흔들리는 구조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문제의 핵심은 섬 주민의 이동권

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에 있다. 해외에는 도서 지역의 항공교통을 공공성이 필요한 필수 교통망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 스페인은 카나리아제도와 발레아레스제도 주민의 본토 이동 편의를 위해 항공운임을 75% 할인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섬 지역 등 일부 외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항공료 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제주와 카나리아제도 등 해외 사례는 항공 수요, 인구 규모, 지리적 여건 등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논외로 할 일은 아니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다.

최근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제주처럼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어려

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최소 운항 횟수와 좌석 공급량을 정하는 한편 도민 항공운임 지원과 좌석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민이 항공권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특혜 요구가 아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지하철과 도로 등 촘촘한 교통망을 이용하는 것처럼,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이동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진료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제주와 내륙을 오가야 하지만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도민들이 있다. 언제까지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것인지,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열린마당

기후위기 시대 제주 용천수의 가치

고 기 경
제주대학교 강사

지역 주민이다. 마을별 용천수의 위치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수질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기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용천수 주변 정화 활동과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용천수 지킴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용천수를 지키는 일은 결국 제주의 물을 지키는 일이며,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용천수 보전은 행정만의 역할로 끝나서도 안 된다. 용천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다. 마을별 용천수의 위치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수질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기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용천수 주변 정화 활동과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용천수 지킴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용천수를 관광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찾는 명소를 만드는 것보다 물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지나친 시설 설치와 인공적인 정비보다는 용천수 주변의 원형과 생태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보전 원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용천수를 지키는 일은 결국 제주의 물을 지키는 일이며,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무인’이지만 더 가까운 지방세 납부 창구

현 준 혁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세금 납부 방법은 다양해졌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은행 앱 등을 이용하면 손 안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모바일 납부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정기분 납부 기간의 긴 대기 행렬 앞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방세 무인수납기다.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확인하고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낯선 주민에게는 필요할

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직접 처리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납세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무인이라고 해서 주민을 혼자 두는 서비스는 아닌 셈이다.

제주도는 2013년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처음 도입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이 중단됐지만, 금융결제원과 연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올해 3월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중단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재계 사실이나 이용 방법을 모르는 주민도 여전히 많다.

아라동주민센터에도 지방세 무인수납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재산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 기간에 창구가 불만다면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보길 권한다.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방세 민원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설치 위치와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이용 동선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옥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광양 → **소리샘 보청기** → 신제주 →
한국병원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 010-9086-8965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